



인도네시아 민주노조운동의 최근 동향

지난 9월 12일 SBSI 의장인 목타르 팍파한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글은 목타르 팍파한과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SBSI의 출범과 활동

SBSI(인도네시아 변형 노동조합)는 1992년 4월 24일에서 26일에 노동자와 활동가 107명이 참가하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군부의 지배도구로 전락한 기존 노조를 대체할 민주노조로 조직되었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체인 SBSI는 모두 14개 부문에 노조 조직을 갖고 있으며, 각 부문은 산하에 공장 차원의 지부(branch)를 두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동티모르를 포함하여 27개 주에 주본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약 1,100개의 회사에 조직이 건설되어 있다.

1994년 SBSI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은 50만명 이상이었었는데 1994년과 1996년 두 번에 걸쳐 팍파한을 비롯한 지도부가 군부에 의해 구속되고 모든 서류가 압수됨으로써 현재 조합원수를 비롯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올 봄의 민주화투쟁의 여파로 지난 7월부터 정부는 신규 노동조합 등록을 받기

시작해, SBSI도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탄압과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 군부가 직접 나서 SBSI 의장인 목타르 팍파한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가 공산주의자며, SBSI가 기독교 단체이며, 유태인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문서를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SBSI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와 탄압을 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다.

1992년 출범 이후 끊임없는 감시와 탄압, 지도부 구속, 조합원 해고 같은 난관을 겪어왔지만, SBSI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SBSI를 거처간 조합원들은 SBSI 조직 강화는 물론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소중한 토양이 되고 있다.

수하르토 퇴진 이후 SBSI는 활동 방향과 노선을 전환하고 있다. 이전의 활동이 군사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과 전투성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수하르토 퇴진

이후에는 교섭력 강화와 전문역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섭은 어떻게 하며, 노조사업과 관련한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며, 공문은 어떻게 만들고, 보고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SBSI는 수하르트 퇴진 이후 권력을 장악한 하비비 정부에 정치범 석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전국회의 소집, 특별의회 소집 등 세 가지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SBSI는 저렴한 식량가격 보장, 노동자 직업안정 보장 및 직업 알선,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산하에 국민경제권회복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 SBSI는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쌀을 배급하고 있으며, 공장과 식당을 만들어 100만명분의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쌀 배급과 일자리 창출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의 의무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활동들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SBSI는 판단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SBSI는 세계은행(IBRD)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강한 노조에 재정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전국노동당(NLP) 건설과 1999년 총선

창립 이후 SBSI는 헌법과 국제법에 반

하는 30개의 악법을 개정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1993년 이후 SBSI는 법개정 투쟁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으며, 1992년에는 민주당(DP)과 정치동맹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 지도부 구속 이후에는 기존 정치정당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실현할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SI는 1996년 이후 노동당 건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7인의 실무위원회를 조직했다. 조직위원회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교사, 공무원, 기업가, 사회단체, 학생을 찾아다니면서 노동당의 필요성과 지도도에 대해 조사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8일 전국노동당(National Labour Party)이 출범했다. 출범 대회에서 당은 9개 과제를 강령으로 정식화했는데, 강령은 노동관계 3개, 경제사회 3개, 정치분야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에서 (1) ILO 87조와 98조의 결사의 자유 보장, (2) 기업 순이익의 20%를 노동자가 관리할 것, (3) 사회보장제도를 정부가 아닌 노조가 운영할 것, 경제사회 분야에서 (4) 산업 농업 어업의 발전 추구 및 전문화·다양화·탈중앙화 추구, (5) 사회안정망과 완전고용의 확

보, (6) 국가예산 25%를 교육기금으로 전환할 것, 정치분야에서 (7) 5개 정치관련법의 개정(①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다, ② 정당 자유 보장, ③ 정부가 아닌 정당의 선거 운영권, ④ 결사의 자유, ⑤ 언론의 자유), (8) 지자체의 독립성 보장, (9) 동티모르 문제 국민투표 회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당은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제4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8개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총 306개 선거구 가운데 154개 지구당을 갖고 있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으로 볼 때, 25개 정당 정도가 내년 총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5%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만이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데 노동당을 포함해 5~6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은 현재의 집권당인 골카르당이, 제2당은 회교정당, 제3당은 민주당, 제4당은 노동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BSI와 노동당 사이에 형식상 직접적인 조직관계는 없다. 조합원이 누구를 지지하든지 그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달려 있지 지도부의 방침이나 조직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에서 SBSI와 노동당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 SBSI는 노동당 창당을 위해 재정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원했으며, 학생 NGO 기업인들을 노동당으로 결집

시키는 역할을 했다. 당지도부 선출과정에도 SBSI가 깊이 개입했으며, 노동당의 지역조직에도 SBSI 지부 조직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또한 SBSI 위원장은 노동당의 상임고문을 맡게 되어 있다. 따라서 SBSI 위원장인 파파한은 노동당의 상임고문이기도 하다. SBSI는 수익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노동당에 재정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삼십십대가 주축이 된 당지도부 교육에도 SBSI가 개입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국제연대 차원에서 세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결집체인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실업자가 2,500만명에 달하며, 경제성장률은 -14%로 내려앉았다. 1년 전에 쌀 1KG에 1천 루피아였는데, 지금은 3천5백 루피아로 가격이 치솟는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자본가들조차도 하비비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경제·사회의 격변기에 인도네시아의 민주노조운동인 SBSI와 새로운 정치세력인 노동당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